

#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윤리적 순교’의 신학적 의의

권영파 (서강대학교 연구원)

## I. 들어가는 말

## II. 미명의 그리스도인 Anonymous Christian과 비판적 부정성

1. 미명의 그리스도인과 보편적 구원은총
2. 보편적 구원은총과 비판적 부정성
3. 미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한 구원

## III. 비판적 부정성의 구원적 의미와 윤리적 순교

1. 고통과 비판적 부정성의 구원적 의미
2. 그리스도인의 사회실천과 희망
3. 윤리적 순교와 종교적 순교

## IV. 윤리적 순교의 신학적 의의

1. 타종교와 함께 걸어가는 구원 여정
2. 사회적 영성의 확장

## V. 나가는 글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51.05>

---

• ABSTRACT •

---

## Theological Significance of ‘Ethical Martyrdom’ in Schillebeeckx’s Theology

Researcher., Kwon Youngpa (Sogang University)

Schillebeeckx’s idea of the ‘anonymous Christian’ accounts for those who cooperate with God’s universal salvific will even though they do not apprehend it explicitly. In this connection, as a force to resist injustice and suffering, ‘critical negativity’ connotes both political and mystical meaning. In Schillebeeckx’s theology, salvation is not confined to socio-political liberation. The ‘anthropological constants,’ that must be presupposed for understanding human behavior and existence in his theology, provide a framework for his understanding of salvation. According to Schillebeeckx, Christian salvation aims at a state in which ‘humanum’ is fully realized by satisfying various condition-physical, mental, socio-political, relational, and spiritual conditions. In this context, ‘ethical martyrdom’ means the life of enduring difficulties caused by one’s commitment to promoting humanity. In contrast, ‘Christian religious martyrdom’ refers to a Christian life of persevering pains and problems due to his effort of realizing God’s will within an eschatological hope, which has already been realized but has not yet been completed. Schillebeeckx’s theological concept of ‘ethical martyrdom’ suggests a social spirituality through which the Christian church can evangelize the world through an interreligious dialogue and in conjunction with a non-religious social movement.

**Key words:** Edward Schillebeeckx, Critical Negativity, Contrast Experience, Ethical Martyrdom, Social Spirituality

---

## I. 들어가는 말

전 세계가 유례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현실 앞에 종교 위기설이 감돈다. 이러한 사태는 구원종교를 자처하는 기독교에게 특별히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외치는 교회를 향해 이 세대는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는가?'를 묻는다. 신앙인 스스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어떤 의미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예수는 구원자 곧 그리스도'라는 신앙 정식이 처절한 고통의 자리에서 의미있는 구원의 공명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천여 년간 구원을 선포했다. 그 선포는 성경을 읽고, 교리를 가르치며, 입교를 통해 신앙의 세계로 이끄는 과정으로 국한되지 않았다. 교회의 선교는 교회 스스로가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이는 세상이 교회의 삶을 통해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교회가 선포한 내용이 청자 안에 진리로서 심겨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인된다. 선교는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이 말씀의 청자에게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교 안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끈다.

현대 신학에서 정행(orthopraxis)이 강조된 맥락도 이와 상통한다.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여성신학 등에서 강조된 실천은 인간을 통해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다 생생하게 드러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신학 기조에서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이 일어나는 장으로 제시되었음에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신앙이 인간 내면영역에서 일으키는 변화뿐 아니라 신앙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면모가 이러한 신학에서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신앙의 출발점이자

궁극적인 지향점에 자리 잡는다. 이때 그리스도교에서 하나님과의 친교는 성찬례나 강렬한 하나님 체험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교의 영성- 곧 하나님과의 친교 안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신앙인이 머무는 자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러한 신앙의 면모는 누룩의 비유(마 13:33; 눅13:21)에서 잘 나타난다. 누룩이 누룩으로서 작용할 때 밀가루가 양식으로 변하듯, 신앙의 씨앗이 역사에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그 정체를 드러낸다. 또한 씨앗이 성장하는 과정은 주변의 생태계와 영향을 주고 받으며 진행된다.

한편, 하나님과의 친교가 사회 참여와 연결되어 이해되는 점은 현대 신학의 새로운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영성 이해가 내면적인 차원의 완성에 방점을 두는 점과 대비된다. 맥긴의 연구<sup>1)</sup>가 보여주듯,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의 뿌리에는 플라톤 철학이 자리잡는다. 플라톤은 의지와 지성의 정화를 통해 영혼이 절대적인 선과 일치로 향해 상승하는 구도를 제시했다.<sup>2)</sup> 그 위에 성장한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정화-조명-일치의 구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 영혼 내면을 탐구했다. 이때 신앙인의 구체적인 삶과 영적인 성스러움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현대 신학의 기조는 이처럼 이분화된 구조를 지양하고 하나님의 역사 내 현존과 활동을 강조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지가 인간 역사 안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역사 안에 포함

1) Bernard McGinn, *The Foundations of Mysticism: Origins to the Fifth Century*, (London: SCM Press, 1991), 23-61, 99-182.

2) 그리스도교 영성사에 나타나는 영성 구도의 변화는 Kees Waaijman, "Towards a Phenomenological Definition of Spirituality," *Studies in Spirituality* 3(1993), 5-57 (특히 9-12)를 볼 것.

되는 초자연적인 운명에 놓인 인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숙한 인간성을 성취하는 일로 이해된다. 또한 이러한 현대신학 조류에서 개인의 영적인 구원 뿐 아니라 평화와 화합, 조화와 정의 등을 강조하는 선교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당면한 고통 앞에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의 처지를 염두에 두고, 스힐레벡스(Edward Schillebeeckx, 1914-2009) 신학에 나타나는 ‘비판적 부정성(Critical Negativity)’과 윤리적 순교(Ethical Martyrdom)’ 개념의 의미를 정리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둔다. 슈뉴(Marie Dominique Chenu, 1895-1990)의 영향을 크게 받은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비판적 부정성’과 ‘윤리적 순교’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활동에 공명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삶을 설명한다. 이에 비해 종교적 순교 또는 향주적 순교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종말론적 희망의 지평에서 행하는 순교를 지시한다.

본 연구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미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이 ‘비판적 부정성’과 ‘윤리적 순교’를 관통하며 ‘종교적 순교’와 마주서는 지점을 보여주려 한다. 이를 통해 스힐레벡스의 윤리적 순교가 지닌 신학적 의의를 정리하고 교회의 사회영성이 교회 밖의 사회실천과 발을 맞추어 걸어갈 길을 살펴보려 한다. 또한 교회의 복음선포가 기독교인의 삶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지로서 공명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미명의 그리스도인(Anonymous Christian<sup>3)</sup>)과 비판적 부정성

스힐레벡스는 벨기에에서 태어나 네덜란드 교회에서 활동했던 신학자로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최와 문헌 작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sup>4)</sup> “세상 밖에는 구원이 없다(extra mundum nulla salus)<sup>5)</sup>는 명제로 집약되는 그의 신학은 세상 안에서 세상과 함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인간의 구원을 분명한 필치로 제시한다. 스킬레벡스는 다양한 사상과 신학조류는 비판적이며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신학논고간의 촘촘한 연결구조를 축조한다. 이에 따라 그의 신학은 어떠한 개별주제를 다룰 때에도 구원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인간론, 종말론 등의 논고들을 피할 수 없는 구조를

- 
- 3) 라너와 스킬레벡스가 제시한 anonymous christian은 당사자 자신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볼 때 이미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머무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는 자신의 신원을 감춘다는 의미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번역에 대응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의 의미를 담은 ‘미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개념을 번역하기로 한다. Anonymous Christian 용어의 번역에 관하여, 권영파, 이규성, “스힐레벡스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해.” 『신학전망』 213 (2021), 97, 각주 39.
- 4) 스킬레벡스는 공의회 기간에 교부나 신학자문관으로 참석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스킬레벡스가 공의회 기간에 그가 미친 영향력은 지대했다. 그는 공의회 개최에 큰 영향을 미친 네덜란드 주교단의 팜플렛 작성을 주도했으며, 공의회 기간 네덜란드 주교들과 문헌작성 참석 주교들에게 강연을 했다. 공의회 참여 당시 스킬레벡스의 신학 입장은, H. Schillebeeckx, *Vatican II-The Struggle of Minds and other essays* (Dublin: Gill and Son, 1963) 에 나타난다. 한편, 공의회에 관한 스킬레벡스의 증언은 Schillebeeckx, *I am a Happy Theologian* (New York, Crossroad, 1994) 특히 13-26을, 스킬레벡스의 참여과정과 활동에 대해서는 E. Borgman, “Living Contact with Hman Reality gave them this openness- Schillebeeckx on the Second Vatican Council, *The Council Notes of Edward Schillebeeckx 1962-1963* (Leuven: Peters Publishers, 2011), XV-XXII 와 같은 저자, *Edward Schillebeeckx, A Theologian in His History* (London: Continuum, 2004), 307-344를 보라.
- 5) 이 명제는 1986년에 출판된 *Als politiek niet alles is... Jezus in onze westerse cultuur*, (1986)에서 처음 나타난다. 이 책의 영어번역본은 다음 두 개의 제목 하에 같은 내용으로 출판되었다. *Jesus in Our Western Culture: Mysticism, Ethics and Politics*. (1987), *On Christian Faith: The Spiritual, Ethical and Political Dimensions*(1987).

드러낸다. 논 연구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윤리적 순교’와 긴밀하게 관련된 논의로 최대한 범위를 국한하고자 한다.

스힐레벡스는 라너와 비슷한 시기에 ‘미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라너와 비교할 때 스킬레벡스가 제시한 ‘미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은 큰 비판을 받지 않았다.<sup>6)</sup> 더구나, 스킬레벡스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된 서구 신학계에 비할 때 한국 신학계에서 스킬레벡스 신학은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sup>7)</sup> 특히, ‘윤리적 순교’에 관한 연구는 외국 학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킬레벡스 신학에서 ‘윤리적 순교’는 주목할만한 주제로 볼 수 있다. 이는 이 개념을 중심으로 미명의 그리스도인과 명시적 그리스도인의 사회정의실천이 구분되는 선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번 장은 미명의 그리스도인과 비판적 부정성의 관계를 정리하여 다음 장에서 다루는 ‘윤리적 순교’ 이해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은총이 인간 안에서 작용하며, 비판적 부정성이 이 은총에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여명으로 이해되는 내용을 정리한다.

- 
- 6) 라너의 ‘미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이 신학계의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시기(1967년)에 발표된 몇 연구물에서 스킬레벡스도 이 개념을 사용했다는 주장과 그 요지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미명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공격은 라너에게 집중되었을 뿐 스킬레벡스가 이 이론과 관련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지는 않았다.
- 7) 국내 연구로는 윤철호, “쉴레벡스의 인식론과 해석학”, 『신뢰와 의혹: 탈근대적 그리스도교 해석학』, 대한기독교서회, 2020, 380-415. 오승성, “올바른 실천 (orthopraxis) 우위의 비판적 신학을 위하여: 쉴레벡스의 실천적 비판 신학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3.1 (2011): 195-219. 남정우, “기상목회: 가톨릭교회의 새로운 신학과 에드워드 쉴레벡스.” 『기독교사상』 45.9 (2001): 158-168. Choi Keum-Ja, “Soteriology by Schillebeeckx.” 『人文科學研究』, 9, (2004): 89-104, 이찬수, “종교체험의 해석적 성격: 스킬레벡스의 해석학으로 본 대순 사상,” 『대순사상논총, Vol.17, (2004), 93-112. 권영파 · 이규성,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스힐레벡스 인간학의 현대적 함의.” 『인간연구』 43 (2021): 159-188, 권영파, 이규성, “스힐레벡스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해.” 『신학전망』 213 (2021): 80-114. 등이 있다.

## 1. 미명의 그리스도인과 보편적 구원은총

스힐레벡스는 아퀴나스의 원죄와 원정의(original justice), 창조와 구원의 이해를 계승한 가운데 미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을 전개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인간은 그릇된 판단으로 이 관계를 상실할 수 있다. 아담의 원죄가 그 예이다. 이처럼 손상된 하나님과 모든 인간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정향된 인간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교에 초대된다.

이러한 신학적 이해의 연장선에서 스킬레벡스는 인간은 그 스스로가 인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라고 말한다. 이때, 종교와 윤리적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활동양상으로 이해된다.<sup>8)</sup> 미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의 불의와 고통에 저항하는 실천이 구원의 의미를 부여받는 지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스힐레벡스 신학 여정에서 ‘미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타난 글은 1953년에 도미니코 수도회원들에게 행한 강연, ‘1945년-1954년의 상황과 관련된 교회사도직het kerkelijk apostolaat in verband met de situatie 1945-1954’이다.<sup>9)</sup> 스킬레벡스는 이 강연에서 “객관적인 가치들이 수용되고 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위해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라면 거기에는, 숨겨져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종교적인 삶이 있다<sup>10)</sup>고 주장했

8) 권영파·이규성.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스힐레벡스 인간학의 현대적 함의.” 『인간연구』 43 (2021): 159-188.

9) 이 강연 원고는 수도회 회원들이 발행한 내부 잡지 *Biekorf*에 실렸다가 1966년에 『세상과 교회』(*Wereld en Kerk*)를 출판하는 과정에서 ‘미명의 그리스도교’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알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3년을 처음 등장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강연의 내용이 박사논문부터 이어지는 신학적 입장을 유지한다는 점에 있다.

10) Edward Schillebeeckx, “Priest and Layman in a secular world”, *World and Church*, trans. N.D. Smith, (New York: Sheed and Ward, 1971), 33.

다.

또한 1961년에 무신론적 휴머니스트들의 활동을 언급하는 글에서도 양심과 구원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나타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양심이 그에게 진리라고 말하는 바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천국에 다다른 좋은 기회를 가진 선한 사람’으로 평가할 것이다”<sup>11)</sup> 한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직후 발표한 글에서 스킬레벡스는 미명의 그리스도인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한다. 이 글에서 미명의 그리스도인은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려는 사람을 가리킨다.<sup>12)</sup>

미명의 그리스도인은 비록 그 자신은 그 은총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은총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스킬레벡스의 인간학에서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향주성이 드러나는 양상은 종교와 윤리로 좁혀진다. 그 연장선에서 미명의 그리스도인은 종교를 통해 진리를 추구하거나,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신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논리를 통해 미명의 그리스도인과 비판적 부정성이 연결되고, 고통이 구원적, 신비적 의미를 갖게 된다.

스힐레벡스 신학의 역사-구원 이해의 근저에 두 가지 확신이 담겨 있다. 그 하나는 세계가 보여주는 방식에 하나님의 활동이 있다는 확신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스킬레벡스에 따르면 구원에 대한 인간의 열망은 인간의 종교적 심리 안에 깊이 심어준 구조에서 나오는 내면적 열정이다. 또한 이러한 구원을 열망하는 인간의 마음은 은총이라는 부르심의 힘으로 비롯된다.<sup>13)</sup>

11) Edward Schillebeeckx, “Non-Religious Humanism and Belief in God” *God and Man*. (New York: Sheed and Ward, 1969). 83.(따옴표는 필자의 표기임)

12) Edward Schillebeeckx, “Church and World” *World and Church.*, 102.

그렇지만, 스킬레벡스 신학에서 모든 비그리스도인이 미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인간은 자유의지로 이 은총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은 미명의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다고 스킬레벡스는 말한다. 동시에 그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진정한authentic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이 지닌 양심의 상태를 아실 수 있다고 스킬레벡스는 말한다.<sup>14)</sup>

## 2. 보편적 구원은총과 비판적 부정성

스킬레벡스는 보다 나은 무언가에 대한 긍정적 희망 앞에서 현실의 고통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불의를 저항하는 인간활동을 ‘비판적 부정성 Critical Negativity’으로 담아낸다. 그에 따르면, 비판적 부정성은 ‘인간성 humanity의 희생 없이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행사하는 긍정적인 힘’이다.<sup>15)</sup>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에 있다.

스킬레벡스에 따르면 인간이 이러한 열망과 원의를 갖는 것은 인간을 통해 인간 세계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절대적인 구원 완성에 대한 암묵적 신앙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해 투쟁할 감성이 생길 수 없다. 이러한 투쟁은 구원에 대한 절대적이고 초월적이며 종말론적인 기대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sup>16)</sup> 스킬레벡스 신학을 집약하는 개념으로 소개할 수 있는 ‘비판적 부정성’은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하려는 노력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

13) *ibid.*

14) Edward Schillebeeckx, “The Church and Mankind,” *World and Church*, 132. 각주 18.

15) Schillebeeckx, *God the Future of Man*(New York: Sheed and Ward, 1968), 191.

16) Edward Schillebeeckx, “The Church and Mankind,” *World and Church*, 105.

동참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한편, ‘비판적 부정성’은 ‘대조경험’과 짝을 이룬다. 이때 ‘대조 경험’은 마땅히 그래야 할 세계의 모습과 현재의 세계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경험을 의미한다. 이 경험은 긍정적 희망에 비추어 현 상황에 저항하는 ‘부정적 거부’와 이를 통해 긍정적 희망을 현실화하는 지평으로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 “지금 여기 있어야 할 무엇에 대한 인식이 지금 여기서 저항해야 할 무엇에 대한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대조경험’과 ‘비판적 부정성’의 관계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킬레벡스는 새로운 상황으로의 개방과 그 앞에서 일어나는 결단을 언급한다.

이 부정적인 경험 안에서, 이와는 다른 상황이 개방된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발하는 단언적인 ‘예’가 발해진다. 이 ‘예’는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합의이다. 이때 알려지지 않은 것의 내용은 긍정적으로 규정조차 될 수 없는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사실상 그 어디서도 찾지 않는 다른 세계, 보다 나은 세계이다. 이것이 미지의 것에 대한 개방성이다. (부정적인 상황)을 거부하는 근본적이고 철저한 radical 경험은 내용 없이 ‘예’를 드러낸다. 왜냐면, 개방된 ‘예’는, 부정적인 것에 대한 항의의 기반이기 때문이다.<sup>17)</sup>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인간의 내면에 ‘마땅히 그래야 할 선한 세계에 대한 확신’과 ‘부정의한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다는 스킬레벡스의 입장이다. 스킬레벡스에게서 전자는 아퀴나스 신학의 원정의와 연결된다.<sup>18)</sup> 이에 비해 후자는 창조이해에 연결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17) Edward Schillebeeckx, “Church, Magisterium and Politics”, *God the Future of Man*, 154.

18)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이 선한 곳으로 지향하게 하고, 인간은 비록 그리스도를 통해 향주성을 복원했다 하더라도 원죄로 인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 그

서 세계 안에서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활동의 협력자로서 창조되었다.<sup>19)</sup>

그런데, 스킬레벡스는 ‘대조경험’에 이어지는 ‘비판적 부정성’을 그리스도인에게 국한시키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희망을 갖고 그 희망에 비추어 직면한 고통에 분노하며 저항할 수 있다. 스킬레벡스는 그 희망을 인본성 humanum으로 제시한다.<sup>20)</sup> 이때 ‘인본성’은 인간이 되어야 할 바에 대한 가능성은 갖고 있지만 결코 실현되지 않은 무엇, 인간의 죄와 자유의 오용으로 인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무엇을 의미한다.<sup>21)</sup>

이상의 내용에서 드러나듯, 스킬레벡스가 ‘미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 주장하려 했던 바는 ‘비판적 부정성을 실천하는 인간’ 이해 안에 옮겨진다.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려는 투신이 불의와 고통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는 스킬레벡스 신학의 연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스킬레벡스에게 이 투신과 저항은 구원에 대한 인간의 열망에서 비롯되며, 그 열망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바탕을 이룬다. 이에 대해 Kathleen Anne McManus, *Unbroken Communion: The Place and Meaning of Suffering in the Theology of Edward Schillebeeckx*.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4) 52.

- 19) Edward Schillebeeckx, “Man and his Bodily World”, *World and Church*, 186.  
 20) 스킬레벡스는 humanum의 원형을 성경에서 찾는다. 이는 성경의 내용을 당대의 표현 방식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스킬레벡스가 사용하는 humanum은 블로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블로흐의 책에 나타난 Humanum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인간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휴머니움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언급에 해당하는 실천이 종교전통이 가진 긍정적 도덕적 언급에 반대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언급은 실제 상황을 간과한다.” E. Bloch, tr. Neville Plaice, Stephen Plaice, and Paul Knight. *The Principle of Hope*. Vol. 3. (Cambridge, MA: MIT Press, 1986.), 108-109.  
 21) Mary Catherine Hilker, “Hermeneutics of History in the Theology of Edward Schillebeeckx,” *The Thomist: A Speculative Quarterly Review* 51.1 (1987): 97-145. 107-108.

아직 실현되지 않은 무엇에 비추어 지금 이 자리의 부정의와 고통을 저항하려는 인간 이해가 그 핵심에 놓인다. 스텔레백스 신학에서 이러한 인간 이해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지와 하나님 구원활동의 협력자인 인간을 전제한다. 그 연장선에서 비판적 부정성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가 보다 나은 사회 건설을 위해 투신하는 모습을 담아낸다.

### 3. 미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한 구원

교회 밖의 구원가능성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 선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주장은 교회와 신학의 역사에서 그 이전부터 발견된다.<sup>22)</sup> 교회 역사에서 구원과 교회의 관계는 그리스도교가 새로운 지역에 전파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원 가능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논의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가운데 교회 밖 구원가능성을 선언했다. “사실,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16항)”

그런데, 같은 문헌에서 교회 밖의 구원가능성을 부정하는 문장도 발견된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먼저 가톨릭 신자들을 생각한다. 공의회는 성경과 성전에 의지하여 이 순례하는 교회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개자요 구원의 길이며, 당신

22) 교회 밖의 구원 가능성에 대한 교회사 신학사적 연구는 Francis A. Sullivan, *Salvation Outside the Church?: Tracing the History of The Catholic Respons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2와 Stephen Bullivant, *The Salvation of Atheists and Catholic Dogmatic The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신앙과 세례의 필요성을 분명한 말씀으로 강조하시면서(마르 16,16; 요한 3,5 참조), 동시에 교회의 필요성도 확인하셨다.(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14항)

구원을 위해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동일한 문헌에서 상반된 답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자기 탓 없이 교회를 모르지만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의 구원가능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교회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공의회 문헌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다. 이 지점에서 교회 역사 안에서 교회 밖 구원가능성이 논의된 맥락을 고려한다면 상반된 입장에 담긴 하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것은 “의지와 무관하게 그리스도교를 접하지 못했지만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교를 접하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목소리이다. 공의회는 이에 더하여 “교회에 합체되더라도 사랑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교회의 품 안에 ‘마음이 아니라 몸’만 남아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14항)”고 선언한다. 여기서 교회가 구원을 세례와 동일시하지 않고 양심과 실천에 연결시키는 점이 감지된다.

이러한 공의회 입장과 스텔레벡스가 주장하는 미명의 그리스도 이론은 원론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스텔레벡스가 라너와 더불어 공의회 문헌 작성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그 고리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스텔레벡스는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보편적 구원은총이 모든 인간에게 허락된 한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스텔레벡스는 모든 인간의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

스텔레벡스 신학에서 교회는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의 신학

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노선과 공통분모를 지닌다.<sup>23)</sup> 스킬레벡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과 친교를 회복한 인류는 미명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총은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나아간다. 이 은총에 힘입어 인류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는 교회로 모여든다. 이러한 논리 안에서 교회 없이 구원은 없다는 정식이 성립된다.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논리는 인간 실존과 자기이해의 연장선에서도 제시된다.<sup>24)</sup> 이를테면 앞에서 정리한 구원과 교회의 관계가 인류 구원과 교회의 관계를 제시했다면 후자는 한 인간의 자기완성에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회의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23) “미명적으로 그리스도인인 인류는 원칙적으로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기 때문이다. 미명의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빠스카 이후 구원의 결실인 교회에 힘입어 원의로서 진정한 교회일원 true votum ecclesiae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하게 그리스도 은총의 보편적 활동을 통해 교회 안에서 전체 인류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점점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내적 발전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역사적 구원은 성령강림 이후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 백성의 실재를 재정립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진하며 원의로서 진정한 교회일원인 votum ecclesia 실재를 만들어간다. 이것이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여기 지상에서 교회가 아직 그가 되어야 할 바에 완전히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도 말해야 한다.” Edward Schillebeeckx, “Church and Mankind”, *World and Church*, 132.

24) 스킬레벡스는 초기 작품에서부터 인간의 자기이해와 완성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순종 안에서 가능하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논의가 집약적으로 정리된 글은 공의회 폐막 이후 발표된 “Faith Functioning in Human Self-Understanding” 이다. 이 글에서 스킬레벡스는 인간이 세상 안에서 맺는 관계로부터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립해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여기서 그는 초월론적인 지평으로부터 향주적인 지평을 거쳐 향주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그려내며, 명시적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만 인간이 참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dward Schillebeeckx, “Faith Functioning in Human Self-understanding”, *The Word in History; The St. Xavier Symposium*, (New York: Sheed and Ward, 1966), 41-59.

스힐레벡스는 교회와 미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세계를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은 인간이 존재의 깊은 의미를 진정한 중요성에 의거하여 파악하지 않고 ‘모호한 상태로 이는가’, 또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는가’를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스킬레벡스에게 이 구분은 인간이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느냐의 문제와 연결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하는 가운데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미명의 상태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오직 언제나 파편화된 자료로 남아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sup>25)</sup>

바로 이 지점에서 스킬레벡스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 인간 실존을 언급한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종교행위를 통해 인간이 추구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맺음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취하시고 은총으로 인간을 만나러 오실 때 실현된다. 이러한 만남은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곧 구원이다.<sup>26)</sup> 교회와 구원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스킬레벡스 후기 신학까지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sup>27)</sup>

25) Edward Schillebeeckx, "Church and Mankind", *World and Church*, 126-127.

26) Edward Schillebeeckx, *Christ the Sacrament of the Encounter with God* (New York: Sheed and Ward, 1963), 3

27) 스킬레벡스 후기 작품에서 그리스도론과 성사론, 교회론 등이 서술되는 방식이 전기와 다르게 나타나고, 사회정치적 실천을 강조하는 점은 그의 신학변화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스킬레벡스가 구원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이해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 스킬레벡스 후기 신학에서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인간의 참 의미와 해방을 찾고 하나님과의 친교 안에 자신을 온전히 비우는 데서 찾아지기 때문이다. 후기 신학에서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구원이 사회적 변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하기보다,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활동이 사회정치적 실천으로 드러나고, 인간은 그 활동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 III. 비판적 부정성의 구원적 의미와 윤리적 순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스킬레백스가 제시하는 ‘미명의 그리스도인’ 이해는 ‘교회를 통한 구원’ 이해 위에 전개된다. 여기서 인간 역사 안에서 인간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보편적 의지와 은총이 중심축에 놓여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보편적 은총에 힘입어 모든 인류가 교회를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간다. 그러나 이 은총을 비록 암시적이거나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인 구원에 협력하는 상태에 들어서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그가 말하는 미명의 그리스도인은 종교와 윤리적 행동으로 드러나는 향주성을 살아가는 사람, 곧 구원에 대한 열망을 보다 나은 사회 건설을 위한 투신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지점에 서면,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모든 인간이 보다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를 감지하고 그에 응하는 인간의 활동을 비판적 부정성으로 담는다면 그리스도인과 미명의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차이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가 그 질문이다. 더불어 다음 질문도 제기될 수 있다. “구원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면, 비판적 부정성의 실천이 구원적, 신비적 의미를 지닌다면, 그리스도인됨은 어떤 의미와 차별성을 가지는가?”도 물을 수 있다.

이번 장은 이 질문에 대한 스킬레백스의 답변을 정리하려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고통과 비판적 부정성이 지니는 구원적 의미를 그의 구원이해 안에서 정리하고, 이어서 윤리적 순교와 종교적 순교의 차이를 정리한 후,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사회실천의 의미를 정리하기로 한다.

### 1. 고통과 비판적 부정성의 구원적 의미

앞 장에서 우리는 스텔레벡스에게서 대조경험과 비판적 부정성이 연결되는 고리를 살펴보았다. 고통이나 불의한 상황이 부정적 대조경험으로 인식될 때 이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려는 투신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적 부정성의 원천은 하나님의 구원의지로 설정되었기에, 비판적 부정성을 실천하는 인간은 그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이미 구원 안에 머물고 있다는 논의가 성립되었다. 이 논의구조 안에서 스텔레벡스는 고통의 구원적 신비적 의미를 말한다.

스텔레벡스는 “고통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실존상황을 깨닫고 보다 넓은 지평에서 자신과 상황을 바라보며 성장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이때 스텔레벡스가 말하는 고통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고통이 모두 포함된다.<sup>28)</sup> 그러나 스텔레벡스에게서 모든 고통이 이러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설정되지는 않는다. 대규모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인간의 품위와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사회적 폭력 등은 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스텔레벡스는 이러한 고통을 의미없는 고통으로 구분하고, 이를 변호하거나 설명하려 노력하지는 않는다.<sup>29)</sup> 이 비극적 고통은 설명할 수 없이 그저 수동적으로 당하는 고통인 한에서 의미없다고 그는 말한다. 스텔레벡스의 신학에서 고통이 신비적, 구원적 의미를 가질 때 이 고통 안에 ‘의미없는 고통’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야 한다.

스텔레벡스에게 고통이 신비적, 구원적 의미를 갖는 것은 고통에도 불

28) Edward Shillebeeckx, *Christ: The Christian Experience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Seabury, 1980) 650, 721, 764(이하 *Christ*로 약기).

29) 스텔레벡스는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언급하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 아우슈비츠가 필요했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건 생각할 수조차 없다”고 말한다. 그에게 이처럼 엄청난 고통은 인류 역사의 부끄러운 장면으로 간주된다. 이는 인간적으로나 신적으로 모두 문제적인 scandal 상황이라고 그는 말한다.

구하고, 이 고통을 통해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고통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 고통의 원인에 집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sup>30)</sup> 인간을 완전히 파괴시키지 않으며 인간이 어떻게든 다루어볼 수 있는 고통일 때 이 고통은 ‘문제’로 성립된다. 이처럼 문제가 된 이 고통이 신비와 연결된다. 이는 이 고통이 고통과 분리되어 있는 무언가 선한 것으로부터 온다고 간주되는데 따른다. 스킬레벡스에 따르면, 인간은 이러한 고통 앞에서 인본성의 증진을 위해 투신하게 된다.<sup>31)</sup>

스힐레벡스가 여기서 고통을 신비로 간주하는 것은 고통 자체를 미화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그에게 고통이 신비인 것은 그 의미 파악이 우리의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2)</sup> 이러한 스킬레벡스의 입장은 과학기술이나 심리적인 치료 등으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대비를 이룬다.<sup>33)</sup> 스킬레벡스는 이러한 접근이 효과적이고 필요하며 칭찬할만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이 접근이 갖는 한계와 부분성을 지적한다.<sup>34)</sup> 동시에 그는 사회정치적 해방의 시각으로 인간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과의 거리를 유지한다.

스힐레벡스에게 고통은 구원과 연결된다. 여기서 고통은 인간의 실존과 신비가 감지되는 장이며, 구원은 해방과 동의어로 사용되지 않는다. 스킬레벡스에게 구원은 그가 제시하는 인간학 상수들이 온전히 충족될 때 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스킬레벡스의 인간학 상수는 인간의 행동과 실존 이해에 전제되어야 하는 구성적 조건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런 한

30) Edward Schillebeeckx, *Christ*, 725.

31) Edward Schillebeeckx, *Christ*, 725.

32) Edward Schillebeeckx, *Christ*, 726.

33) Edward Schillebeeckx, *Christ*, 764.

34) Edward Schillebeeckx, *Jesus*, 624, “어떠한 사회적, 정치적 처방이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상처가 있다. 설사 가장 좋은 사회구조 안에서조차 인간은 여전히 소외될 수 있다. 최상의 구조가 자동적으로 인간을 선하고, 성숙하고 인간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에서 구원을 가늠하는 조건을 나타낸다. 이 때문에 스킬레벡스가 제시하는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학 상수 Anthropological Constants’를 짧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스킬레벡스가 제시하는 일곱가지 상수<sup>35)</sup> 중 첫째는 육체성, 자연 그리고 생태적 환경과 인간이 맺는 관계이다. 다시 말해 이 상수는 인간이 육체를 통해 정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실현하는 존재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이러한 인간이 주변 환경과 분리된 존재로서 삶 수 없음을 말해준다. 이를 구원과 연결시킬 때 “그리스도교의 구원은 육체를 지니지 않는 천사의 구원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의 합일체인 인간의 구원을 의미한다.”<sup>36)</sup>

두 번째 상수는 관계 안에서 실현되는 인간 실존을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상호관계 안에서 개별자로서의 한계를 초월하여 타자를 존재 그 자체로서 자유롭게 사랑하는 가운데 인격적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구원과 연결시킬 때 그물망에서 동떨어진 개인, 소외된 인간의 처지는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논의가 도출된다.

세 번째 상수는 인간이 사회적 제도적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인간은 타자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실현하지만 이는 구체적 인 사회정치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상수와 관련하여 스킬레벡스는 인간이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머물지 않고, 인간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강조한다. 이 연장선에서 구원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는 점이 밝혀진다.

인간학의 네 번째 상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이다. 인간이 시공간으로부터 자유롭게 못한 사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은

35) 인간학 상수는 Edward Schillebeeckx, *Christ*, 728-738.

36) Edward Schillebeeckx, *Christ*, 730.

고통 이해와 연결된다. 그렇지만 스힐레벡스에게서 인간은 고통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실존과 사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제시된다. “(고통 안에서) 인간은 인간을 위한 진리는 기억된 진리 *remembered truth* 로서만 가능하며, 이 진리는 동시에 실현되어야 할 진리라는 점을 경험하게 된다.” 본 논문의 내용에서 다루어지는 고통의 구원신비적 의미는 이러한 인간 이해에 닿아있다.

한편, 스힐레벡스는 이론과 실천의 상호관계를 인간학의 다섯 번째 상수로 제시한다. 스힐레벡스가 이를 상수로 규정하는 근거는 인간 문화가 이 관계를 통해 영속성을 얻는다는 데 있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주어진 상황에 적응해야만 하는 여타 동물과 달리 인간만은 문화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즉 문화를 통해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실현할 수 있다.

이에 이어 스힐레벡스는 인간이 지닌 종교적, 준종교 *para-religious* 의식을 여섯 번째 인간학 상수로 제시한다. 이 상수는 스힐레벡스 인간학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다고 제시되는 것과 연결된다. 또한 인간의 구원과 연결할 때 이 상수는 인간 구원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실현됨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스힐레벡스에게 종교는 진리를 정립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스힐레벡스에게 종교는 인생의 길을 쫓아가려는 노력이다. 이는 “인간은 성스럽고, 난공불락인 무엇, 그것을 위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 마음과 정신과 각각 모두를 쏟아부을 가치가 있는 무엇을 지닌다”<sup>37)</sup>는 발언과도 통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정신이자, 하나님의 대화상대로 창조된 인

37) Edward Schillebeeckx, “Prologue: Human God-Talk and God’s Silence” Mary Catherine Hilkerter and Robert Schreiter, eds, *The Praxis of the Reign of God.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Edward Schillebeeckx*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2). x.

간은 윤리와 종교를 통해 이러한 향주성을 드러낸다.

스힐레벡스가 말하는 구원은 사회정치적 해방을 반드시 포함하지만 결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다. “어떠한 해방도 만약 종교적 구원을 간과한다면 그 해방은 부분적인 해방이다. 만약 이들이 이러한 논의선상에서 인간의 총체적 해방을 주장한다면 이는 인간성의 진정한 차원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들은 인간을 해방시키는 대신 최후의 수단으로 인간의 뿌리를 뽑아버린다.”<sup>38)</sup> 이러한 논의의 기저에는 역사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이해가 깔려있다. 스킬레벡스 신학에서 역사의 주체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며, 이것이 신앙의 규범form이라고 그는 주장한다.<sup>39)</sup>

마지막 상수는 ‘여섯가지 상수간의 환원할 수 없는 종합’이다. 스킬레벡스의 이 표현은 인간의 문화가 관념론적으로 또는 유물론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자율적인 실재라는 점을 주장한다. 즉 스킬레벡스가 여섯 항목을 나열한데서 그치지 않고 ‘종합’이라는 요소를 별도의 상수로 제시한 것은 여섯 개의 상수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기본 규범을 그려감을 말하고 있다.

스힐레벡스가 고통의 신비적 의미를 말하고, 고통과 구원을 인간학 상수 안에서 규정한다는 점이 스킬레벡스의 구원이해를 위한 나침판을 제시한다. 스킬레벡스에게 구원은 죽음 이후의 영적인 구원에 머물지 않으며, 정치적인 해방이나 개인적인 차원의 치유, 행복, 성공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스킬레벡스가 말하는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간다움을 온전히 실현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상태는, 곧 구원의 상태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만 이 인식이 그를 해방시키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는 고통 앞에서

38) Edward Schillebeeckx, *Christ*, 734.

39) Edward Schillebeeckx, *Christ*, 735.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과 우연성을 인식하고 보다 넓은 지평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성찰하는 가운데 진정한 자기이해와 자유를 누리는 상황을 나타낸다.

또한 스킬레벡스에게 구원은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사회와 함께 사회 안에서 실현하고 누리는 해방을 구원이해에 포함시킨다. 세상이 고통에 가득차 있을 때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삶은 불가능하다. 스킬레벡스의 고통과 구원이해는 이웃과 사회의 고통이 나의 해방과 구원과 불가분한 관계에 놓여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스킬레벡스는 이러한 해방과 구원이 이론적으로, 또는 영성적인 뜨거운 체험으로, 또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재한 정치적 해방만으로 실현되지 않음을 역설한다. 그의 구원과 해방 이해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철저한 분석 위에 전개된다.

스힐레벡스가 고통이라는 대조경험에 구원적, 신비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의 신학에서 고통이 신비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고통이 새로운 지평에서 사태를 전체성 안에 바라보며, 자신을 보다 온전히 이해하는 계기를 주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스킬레벡스는 비판적 부정성을 통해 고통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사회적이며 공동체적인 상호적 사랑을 기억하는 계기를 강조한다. 이에 비해 고통이 지니는 구원적 의미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려는 갈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해의 연장선에 있다. 여기에서 스킬레벡스는 비판적 부정성을 실천하는 인간은 이미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한다.<sup>40)</sup>

40) Edward Schillebeeckx, "Jesus the Prophet", *God Among Us: The Gospel Proclaimed*. (New York: Crossroad, 1983). 44.

## 2. 그리스도인의 사회실천과 희망

비판적 부정성은 ‘아니오’로 경험된 사태에 대해 저항하는 힘을 말한다. 이러한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비그리스도인에게도 직면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부정하는 근거로서의 희망이 작용한다. 스킬레벡스에게 이 근거는 인본성humanum이다. 이 개념은 구원을 정초하는 기반도 제공한다.

스킬레벡스가 인본성을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은유로 설명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에 따르면, 그 첫째는 모든 남녀가 더 이상 주인-하인의 관계로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결정적인 구원 또는 급진적인 해방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은유이다. 둘째는 각 개인의 행복과 완전한 구원이며 이는 육체의 부활이라는 은유에 해당한다. 셋째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생태적인 환경의 완성으로서 이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은유에 해당한다.<sup>41)</sup> 이 비유를 종합할 때 스킬레벡스가 인본성humanum에 담아내려 한 세상은 ‘평등하고 안전한 여건에서 충족된 행복을 누리는 세상’이며 인간 누구나 꿈꾸는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교회와 개별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판적 부정성은 어떻게 연결될까?를 물을 수 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비판적 부정성 실천은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가?를 물으며 스킬레벡스의 답변에 다가서기로 한다.

스킬레벡스의 교회 이해가 제도와 친교를 모두 중시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sup>42)</sup>스킬레벡스가 제시하는 친교 공동체로 교회는

41) Edward Schillebeeckx, *God Among Us*, (New York: Crossroad, 1983). 161-162.

42) 스킬레벡스의 교회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Daniel Speed Thompson, *The language of dissent: Edward Schillebeeckx on the crisis of authority in the Catholic Church*.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3), Susan A. Ross, “Church and Sacraments”, *The Praxis of the Reign of God: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비판적 부정성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가리킨다. 이때 비판의 대상은 비단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향한다. 그런데 이러한 “스힐레벡스의 교회 구상 이해에 참조해야 하는 내용은 네덜란드 가톨릭 교회의 역사이다.”<sup>43)</sup> 스힐레벡스가 교회에 관한 저서를 출판하고 교회의 경계를 받은 것은 급격한 사제 지원자 감소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은 네덜란드 교회 실상을 반영한 결과<sup>44)</sup>이다. 제도로서의 교회에 비해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듯 보이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스힐레벡스는 비판적 부정성을 실천하는 교회를 제시하는데, 이는 성서신학을 반영하며 저술한 『예수』와 『그리스도』의 연장선에 있다. 스힐레벡스는 이 책들에서 예수를 살아생전 만나 신앙을 고백한 공동체(『예수』)와 예수 사후 공동체의 사회, 정치, 문화, 역사 맥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공동체를 다룬다(『그리스도』). 여기서 스힐레벡스는 교회 발전에 대한 역사적, 성서적 고찰에 입각하여 민주적이며, 공동체 중심적인 사제활동 및 지정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신비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실재를 넘어 또는 이 실재 뒤에서 발견될

---

*Edward Schillebeeckx* (ed. Mary Catherine Hillkert and Robert J. Schreiter; (New York, NY: Fordham University Press, 2nd edn, 2002), 133-148, 37-58 (37). James A Wiseman” Schillebeeckx and the Ecclesial Function of Critical Negativity.” *The Thomist: A Speculative Quarterly Review* 35.2 (1971): 207-246. Daniel P Thompson,., “The Church as Sacrament: Schillebeeckx’s Contributions to the Construction of a Critical Ecclesiology.” *Religious Studies and Theology* 17.1 (1998): 33-47. Stephanus van Erp, “Sign and Precursor of God’s Grace for All. Schillebeeckx’s Ecclesiology during the Second Vatican Council.” *Schillebeeckx and Vatican II, Date: 2018/02/19-2018/02/19*, (Malta, 2018).

43) Ross, 앞의 글, 152.

44) 스힐레벡스는 교회의 발전과정에 대한 성서적, 해석학적, 역사적 성찰을 종합하여, *Ministry: Leadership in the Community of Jesus Christ*. (New York: Crossroad, 1981).를 발표한다. 방법론이나 책의 구조를 볼 때 신학 3부작의 세 번째 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이 책에서 스힐레벡스는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사제, 공동체에게 선출권이 주어지는 사제임명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은 네덜란드 가톨릭 교회가 그 시기에 직면했던 심각한 사제부족 현상을 반영하여 읽어야 한다.

수 없다. 교회 공동체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실제 안에서, 지금 여기서 그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실제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sup>45)</sup>고 주장한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신자들과 공동체는 당대의 문화와 사회정치적 상황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복음의 기준에 따라 ‘아니오’를 주장하고 문제를 개선하는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이는 당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묵상, 전례 참여 등이 궁극적인 활동의 원천으로 작용할 때 가능하다. 이런 점을 반영할 때,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를 위한 투신은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홀마크가 아니다. 이는 전례적 기도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장이다.”<sup>46)</sup> 는 주장과 “신앙은 신비적인 차원과 정치적인 차원을 갖는다<sup>47)</sup>”는 스킬레벡스의 발언을 이해하게 된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정치란 사회적 투신commitment이 집약된 형태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신비는 하나님 사랑 또는 하나님 경험이 집약된 형태를 의미한다.<sup>48)</sup> 스킬레벡스가 고통의 신비를 정치적, 구원론적 연결선에서 살펴보는 근거는 신비에 대한 그의 접근방식 안에 드러난다. 스킬레벡스는 신비를 고요함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 체험만을 보지 않고, 신비주의의 세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sup>49)</sup>

그에 따르면, 신비주의의 첫째 요소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는 경험이다. 스킬레벡스 신학에서 그것이 초월적이건 내재적이건 간에 이 전보다 총체적인 지평에서 전체성을 볼 수 있는 경험은 신비적 경험으로

45) Edward Schillebeeckx, *Christ*, 213.

46) Edward Schillebeeckx, “A Glass of Water for a Fellow Human Being”, *For the Sake of God*, 62 스킬레벡스는 동료들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특별한 형태라고 말한다. 이러한 입장은 “Justice, Peace and the Integrity of Creation”, *For the Sake of God*, 150에서도 나타난다.

47) Edward Schillebeeckx, *Jesus in Our Western Culture- Mysticism, Ethics and Politics*, (London: SCM Press, 1987), 75.

48) *ibid.*, 72.

49) 이에 관하여, *Church* 1985, 69.

간주된다. 이에 이어 스킬레벡스는 신비주의의 두 번째 특성을 그 자신이 경험한 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며 이를 고뇌하고 질문하도록 만드는 점이다. 이는 이전까지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사태를 새로운 지평에서 이해하는 자기이해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스킬레벡스가 제시하는 신비주의의 마지막 특성은 상실의 경험 가운데서도 상호적인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점이다. 이 특성은 스킬레벡스의 신비주의의 이해가 지닌 공동체적이며 사회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확인되듯이, 스킬레벡스에게 신비경험은 종교적 경험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니는 희망에 비추어 현실의 부정적인 요소를 간파하고, 새로운 지평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어떠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연대 안에 실천을 지속할 때 대조경험은 신비경험이 된다. 이처럼 스킬레벡스에게 인간의 종교성은 사회성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가운데 일상 생활 안에서 신비의 지평을 감지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스킬레벡스가 제시한 미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명제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여준다. 스킬레벡스는 도미니코 수도회원으로 판상과 설교를 중시한 전통을 이어받았다. 이 때문에 스킬레벡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인의 근본적 자리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교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가장 인간적인 상태, 인간학의 상수가 충만되는 상태로 이끄는 힘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사회적 실천과 비판적 부정성은 당장 불의와 고통이 사라지지 않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이 세상의 악을 이기리라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있음이 밝혀진다. 그리스도 공동체의 비판적 부정성의 실천은, 곧 보다 나은 사회건설을 위한 투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에 힘입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다.

한편, 친교로서의 교회 이해에 있어서 스킬레벡스가 주목하는 지점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교회만이 아니라 신앙인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가 복음화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입장은 스틸레백스의 제자로서 미국에서 활동하며 토착화신학을 이끄는 로버트 슈라이어의 책<sup>50)</sup>에서 그 전반적인 윤곽을 확인할 수 있다.

### 3. 윤리적 순교와 종교적 순교

스틸레백스 신학에서 ‘윤리적 순교’는 그리스도인의 비판적 부정성과 미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판적 부정성을 가르는 지점에 자리잡는다. 스틸레백스에게서 윤리적 순교 자체는 그리스도인지와 무관하게 미명의 그리스도인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그 지향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며 그 희망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라는 질문에서 윤리적 순교<sup>51)</sup>는 종교적 순교와 구별된다.

윤리적 순교와 관련하여 스틸레백스는 우선 윤리적이라는 개념을 정의한다. 스틸레백스는 이를 그 명시적 목적explicit object을 인간이 인간으로서 발전하는 데에 두는 또는 명시적 목적을 인간화humanization에 두

50) Robert J. Schreiter, *Constructing Local Theologies*. Orbis Books, 2015. 슈라이어의 이 책은 스틸레백스 신학에 따라 교회 공동체가 해당 지역의 문화 및 사회 복음화와 교회의 복음화를 위해 취해야 할 행동과 원리 및 조직구성을 제시한다. 한편, 이 책은 황애경에 의해 『신학의 토착화』(서울:가톨릭출판사, 1991)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김태연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번역본의 책 제목이 이 책의 내용과 취지를 올바르게 전달했다고 보는 데 한계가 있다. 김태연, “신학의 ‘토착화’와 ‘지역화’ 사이에서 - 로버트 슈라이어의 ‘지역신학’ 담론을 중심으로”. 『신학연구』, 5,(2013). 186-216.

51) 스틸레백스는 대표적인 동시에 문제작이었던 『예수 Jesus』와 『그리스도 Christ』를 출판한 후에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에 집중하는 저서를 출판한다. 윤리적 순교는 이 시기에 출판된 『그리스도 신앙에 관하여 On Christian Faith』과 『인간의 얼굴을 지닌 교회 The Church with a Human Face: A New and Expanded Theology of Ministry』에서 나타나고 신학 3부작의 마지막 저서인 『교회: 하나님에 관한 인간 이야기 Church: The Human Story of God』에서 집약된 논의가 나타난다. 이 중 『그리스도 Christ』에서 스틸레백스는 ‘종교적인 도전으로서의 윤리’라는 소제목 아래 향주성과 윤리적 행동 및 신앙의 관계를 정리한다.

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비해 종교적religious, 신비적 mystical, 향주적theological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명시적 목적explicit object으로 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sup>52)</sup> 여기서 스킬레벡스가 윤리적이라는 개념과 종교적이라는 개념을 구분하는 가운데, 그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을 묻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종교적인 행위는 그 행위의 목적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향하는 행위를 뜻한다.

한편, 스킬레벡스에게 순교는 모든 형태의 불의에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에 고통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sup>53)</sup>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윤리적 순교는 그리스도인 여부에 무관하게 인간화를 증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받게 되는 고통을 감내하는 삶을 지시하게 된다. 이에 비해 종교적 순교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감내하는 삶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스킬레벡스의 ‘윤리적 순교’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가 어떠한 상황을 윤리적 행동 규명에서 설정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스킬레벡스는 윤리적 행동이 처한 상황이 칸트가 제시한 보편준칙에 준하는 상황에서 전체로서의 인간을 향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말한다. ‘내가 남에게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 요구로부터 나오지 않는 요구를 나에게 하는 구체적인 인간이 윤리적 행동의 대상이다. 여기서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비대칭적인 관계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서로의 자유의지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윤리적 행동이 놓이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스킬레벡스는 윤리적 요청과 그 결단이 대칭적인 관계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한다.

52) Edward Schillebeeckx, *Church*, 91-92.

53) Edward Schillebeeckx, *Church*, 92.

그에 따르면 윤리적 요청과 결단은 나는 누군가에게 요구할 수 없는 무언가를 양심의 명령에 따라, 허망한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행하는 상황에서 전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리는 결단이 윤리적 순교로 제시된다. 스킬레벡스는 사살대에 속한 군인이 포로 사살 명령을 거부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군인의 순교를 예로 들며 이를 설명한다. 자신의 명령 거부로 포로의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 그 어느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거부하는 군인의 이야기이다.<sup>54)</sup>

한편, 스킬레벡스는 위의 상황에서 신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한다. 나의 선택으로 악이 사라진다는 보장도 없고, 나의 존재마저 위협에 붙이는 상황에서 이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희망’의 지평이라고 스킬레벡스는 말한다. “두 경우 모두 선택은 선good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리라는 희망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 안에 있는 신앙이다<sup>55)</sup>” 이러한 내용은 미명의 그리스도인에 나타난 입장, 곧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은총과 의지가 인간을 통해, 인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그런데, 스킬레벡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선택은 다르게 나타난다. 스킬레벡스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힘을 준다고 말한다. 이 믿음은 종말론적인 희망이며 동시에 궁극적인 신앙의 원천이기도 하다. 스킬레벡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을 따르는 선택은 항주적인 관계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sup>56)</sup> 스킬레벡스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가르침의 본질과 그것에 부합하는 그의 생활 방식, 그의 선물과 헌신의 무조건적인

54) 군인의 순교로 불리는 이 이야기는 *On Chistian Faith*, 56과 *Church 1989*, 994에 나타난다. 인용문은 *Church 1989*, 92에서 인용하여 번역한 내용이다.

55) Edward Schillebeeckx, *Church 1989*, 95.

56) Edward Schillebeeckx, *Jesus in our Western Culture*, 85.

본질, 그의 전체 인격, 메시지 및 행동의 진정성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sup>57)</sup>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성과 한계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 발견되는 궁극적인 가능성에 열려 있다. 그리고 이 체험은 신앙인이 하나님과의 대화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내용을 그 신앙 안에 괄호치는 것이다.<sup>58)</sup> 이를 통해 스힐레벡스가 말하려는 바는 비신앙인의 하나님 체험은 이성적인 선에 머물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체험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곳으로 이끈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신앙인이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탁하는 것은 종말론적 희망 안에서 가능하다.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에서 찾아진다. 스힐레벡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약속을 계시 할뿐만 아니라 창조의 본질적인 선함을 확인시켜 준다. 이 때문에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구원은 창조를 통해서 이해되며 종말론은 창조와 구원을 통해 이해된다.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비로 머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다. 그러나 이 신비는 불가지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존재이며, 인간 이성을 비추어 당신을 알아차리도록 끊임없이 역사 안에 당신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곧 아빠체험으로 이어진 관계가 부활로 드러날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악을 이기시는 능력을 종말론적 희망 안에 갖게 된다. 이런 전망에서 행하는 윤리적 순교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은총의 자리이다.

57) Edward Schillebeeckx, *Essays Ongoing Theological Quests*,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14). 45.

58) Edward Schillebeeckx, *For the Sake of the Gospel*. (New York: Crossroad, 1990)

#### IV. 윤리적 순교의 신학적 의의

스힐레벡스의 신학을 대변하는 명제는 ‘세계 밖에 구원이 없다’이다. 이 명제는 인간의 구체적인 삶이 전개되는 인간 세계 안에서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부족함 없이 조화롭게 실현될 때 인간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 기저에 미명의 그리스도인 이해를 떠받치는 아퀴나스 신학의 창조론과 인간학이 놓여 있음을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확인했다. 예수를 대조경험으로 제시하는 그의 신학에서 예수는 유일회적인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스킬레벡스의 구원이해는 신앙고백을 통해 죽음 이후에 보장되는 구원에 멈추어서지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구원에 다가설 수 있다는 고백이 스킬레벡스 신학의 뿌리에 굳건히 박혀있다. 스킬레벡스가 미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을 통해서, 그리고 비판적 부정성과 윤리적 순교 등을 통해서 주장하려는 바는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교회는 어떻게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자리에서 ‘미명의 그리스도인’이 언급된다.

##### 1. 타종교와 함께 걸어가는 구원 여정

스힐레벡스는 ‘미명의 그리스도인’ 용어를 통해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려는 그들의 활동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보았다. 그 내용이 미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 뿐 아니라 대조경험과 비판적 부정성 및 윤리적 순교에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스킬레벡스에게 교회와 세계의 대화는 그리스도교와 이방인간의 대화 또는 종교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의 대화를 의

미하지 않는다. “이 대화는 하나의 그리스도성을 상호보완적인 양상으로 경험하는 두 가지 경험 간의 대화이다. 그 두 개의 경험 중 하나의 경험은 ‘교회에 의해’ 성사적으로 표현되는 명시적 신앙인들의 하나님 정향적인 삶을 말한다. 또 다른 하나는 이와 별개로 구분되지 않는, ‘이 세상 안에서’ 세속적으로 표현되는 삶이다.” 그러므로 스힐레벡스가 말하는 세계와의 대화는 하나님과의 대화다.<sup>59)</sup>

스힐레벡스는 종교가 아닌 여타의 행위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감각으로 빛을 발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삶과 죽음, 모든 노력과 고통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대할 때 드러나고 표현된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스힐레벡스는 그리스도교 이외의 종교 안에도 하나님의 활동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스힐레벡스는 인간이 암시적인 상태에서라도 이 하나님과 함께 세속 사회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해지는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하려는 활동은 하나님의 육화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때 성(聖)과 속(俗)이라는 두 세계는, 그 구별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장이 된다.<sup>60)</sup> 이 구도 안에서 구원은 그리스도교와 다른 종교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감지된다. 향주성이 종교에서 나타나고 이러한 종교가 윤리성을 가진 한에서, 종교는 하나님의 구원 협력을 행하는 사람들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힐레벡스의 입장은 1990년에 세계교회협의회(WCC)가 반포한 바아르선언문(Baar Statement)와 상통한다. 이 선언문은 언제 어디서나 역

59) Edward Schillebeeckx, “Dialogue with God and Christian Secularity” *God and Man*, 224.

60) Edward Schillebeeckx, “Dialogue with God and Christian Secularity”, *God and Man*, 226.

사 안에 임재하시며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바야르 선언문은 모든 나라와 민족, 타종교 안에 하나님이 활동하신 일들을 인정하자고 제안하는 동시에 예수 사건이 역사에 드러난 가장 분명한 구원의 징표라고 못박음으로써 구세사적 예수 사건의 의미를 다른 종교와 일직선에 놓는 입장을 피해간다. 이렇게 볼 때 이 글에서 정리한 스텔레벡스 신학구조와 개념들은 하나님의 선교와 바야르선언문 등을 체화하는 선교와 복음화 실천에 의미있는 구상을 제안하리라 기대한다.

## 2. 사회적 영성의 확장

스텔레벡스 신학은 관상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는 영성을 제시한다. 그의 신학에서 정언은 정행을 통해 정언으로서 드러나며 정립된다는 이해가 성립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스텔레벡스 신학은 사회적 정치적 해방을 구원과 일치시키지 않는다. 그에게서 구원은 구원 자체가 신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교 안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맡기는 순종 안에서 이루어진다.

스텔레벡스가 제시하는 윤리적 순교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해 위에 전개된다. 이에 따라 그가 제시하는 비판적 부정성과 윤리적 순교의 영성은 육체와 정신의 온전한 성숙과 건강한 사회관계 및 정의로운 경제, 정치 질서를 모두 반영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희망이 무신론적 휴머니스트들이나 과학기술이 제시하려는 희망을 비추어 주어진 여건에서 ‘아니오’를 식별하고 외칠 수 있도록 이끈다고 그는 말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텔레벡스 신학은 사회적 영성을 확장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영성은 그리스도교라는 특정 종교에 국한되어 사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영성은 피안적인 특성을 벗어나 일의 영성, 의료인의 영성,

불완전함의 영성spirituality of imperfection,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와 무관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용례들은 삶을 영위하는 가치 기준이나 의미 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내적이거나 초월적인 존재와 연결하여 이해하려는 현대인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처럼 다양한 영성 용례의 스펙트럼에서 ‘사회적 영성social spirituality<sup>61)</sup>’을 발견한다. 사회적 영성은 보다 나은 사회로의 변혁을 향하도록 삶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실천을 이끌어가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영성 이해에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또는 피안적인 특성을 지녔던 영성의 면모가 극복되어 관계적이고 사회적이며 현세적인 특성을 보충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사회적 영성은 사회윤리와 영성 및 관상과 실천을 연결하려 한다. 사회적 영성의 이러한 정의에는 정의를 실현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러한 사회영성의 특징과 내용은 스힐레백스의 신학에서, 특히 윤리적 순교의 영성에서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영성이 가톨릭 사회교리의 전통에 나타난 요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실현하려는 의지의 발현인 한에서, 공의회 정신의 기틀 확립에 기여한 스힐레백스 신학과의 공명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가톨릭 교회가 코로나 확산 기간 중에 발표한 사회회칙, 『모든 형제Fratelli Tutti』<sup>62)</sup>에서 스힐레백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 회칙은 형제애(fraternità)와 사회적 우애(amicizia sociale)라는 이상에 주목한다. 회칙에 따르면 이 이상은 일상적인 관계, 사회생활 정치 및

61) 이 용어는 호주주교회의의 정의, 생태, 평화위원회를 이끄는 Sandle Cornish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명이다. 본 논문에서 설명하는 사회적 영성은 Cornish가 제시한 설명을 따른다. <https://sandiecornish.com/social-spirituality/>

62) 교황 프란치스코, *Lettera Enciclica Fratelli Tutti del Santo Padre Francisco Sulla Fraternità e L'amicizia Sociale.*, 2021, 한국어번역본은 프란치스코, 『모든 형제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1.

사회제도 안에서 보다 공정하고 우애 넘치는 세상을 건설하려는 모든 이들이 구체적으로 실현할 이상이다. 이 회칙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영성은 보다 나은 정치 안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구체적인 실천들을 통해 인간 존엄성을 증진시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하는 모습으로 사회와 역사에 대한 감각 상실, 공동선으로부터 멀어지는 이기심과 타자에 대한 무관심, 각종 차별과 불평등, 폭력 등이 제시된다. 회칙에 나타나는 이러한 내용은 스힐레백스 신학에 담긴 주장을 현 상황에서 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스힐레백스 신학이 사회적 영성을 확산시키고 확장하는 좋은 틀을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스힐레백스의 윤리적 순교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에 머물지만 하나님의 구원은총에 머무는 이들과 함께 사회적 영성을 살아가는 신학을 제공한다. 윤리적 순교는 인본성의 증진을 위한 현대 인류의 노력을 담아내는 사회적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여정 안에서 그리스도교는 윤리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여타 종교와 함께 평화와 정의를 실현할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러한 활동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으로 현대 제도와 가치관 등을 비추어 그릇된 방향과 현실에 ‘아니오’를 외치도록 이끈다. ‘아니오’의 외침 안에 드러나는 희망과 ‘예’는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이 보여준 약속의 의미를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준다. ‘아니오’가 불러일으키는 공명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양심과 용기를 공명시키며 보다 나은 사회 건설을 위한 연대를 확장시킨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보조성의 원리를 충실히 견지하며 공동선 증진에 동참한다. 교회에게 사회실천은 그 자체로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 아닌 동시에 구원의 수단도 아니다. 교회에게 사회실천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이 곳’에 실현하는 노력에 포함되며 그 원천은 하나님의 구원의지이다. 인간은 구원의 협조자이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현존을 예민하게 느끼며 그 뜻에 순종할 때 열린다.

한편, 우리는 스킬레벡스가 제시하는 인간학상수와 구원의 연결고리 안에서 그리스도교의 구원이 결코 피안적이거나 내면적인 구원 또는 강렬한 영적 체험과 동일시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신학에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달성되지 않고, 세상 안에서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서 구원 여정을 걸어가는 인간을 강조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살피시는 우리의 활동 안에서 우리 자신 뿐 아니라 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논리가 그의 신학 구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 V. 나가는 글

이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미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을 전개한 스킬레벡스 신학에 나타난 비판적 부정성과 윤리적 순교의 의미와 의의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교회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는 그리스도교가 교회 밖의 세상에서 구원적 의미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특별히 본 내용에서 사회적 영성과 관상 및 비판적 실천의 영성이 윤리적 순교 안에 조화를 이루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교회는 순교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지닌다. 이는 순교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수많은 순교자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신앙이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의 순교는 죽음까지도 감내한 숭고한 신앙적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에 비할 때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현 상황에서 순교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반하는 가치관과 생활방식, 문화 등을 거슬러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지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순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묵묵히 감내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감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교회의 순교기록과 순교자현양에 나타나는 순교 이해<sup>63)</sup>를 지양하고 보다 근본적인 의미의 순교를 실천하는 삶을 스힐레백스가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스힐레백스 신학에 나타나는 비판적 부정성과 윤리적 순교는 그리스도를 따름과 관상 그리고 실천이 어떤 관계를 맺으며 행해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과학기술 발달이 열어갈 미래를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현 상황에서 스힐레백스의 신학은 교회와 신학자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선교에 임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그의 삶과 실천으로 하나님의 현존과 구원을 드러내 보일 때, 현세의 가치와 발전 방향을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으로 비추며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하도록 이끌 때, 선교와 복음화가 뿌리내릴 수 있다는 점을 그의 신학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 이 글이 사회적 영성 안에 전통적 의미의 선교와 비판적 사회 실천을 모두 담아내려는 노력들에 작은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

---

63) 교회 전통에서 순교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육체적 죽음을 실제로 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그 죽음이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진리*odium fidei*에 기인하여, 그 증오자에 의해 야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 조건은 그리스도교 진리와 신앙을 증거하려는 의지로 기꺼이 그 죽음을 자발적으로 수용한 자세이다. 이러한 순교자 분별 기준이 죽음의 장면에 집중된 순교기록의 양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 참고문헌

- Schillebeeckx Edward, *Christ: The Christian Experience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Seabury, 1980).
- \_\_\_\_\_, *Church: The Human Story of God*. (New York: Crossroad, 1990).
- \_\_\_\_\_, *God the Future of Man*. (New York: Sheed and Ward), 1968.
- \_\_\_\_\_, *God and Man*. (New York: Sheed and Ward, 1969).
- \_\_\_\_\_, *For the Sake of the Gospel*. New York: Crossroad, 1990.
- \_\_\_\_\_, *World and Church*. (New York: Sheed and Ward, 1971).
- \_\_\_\_\_, *Vatican II, The Struggle of Minds and other essays*, Dublin, Gill and Son, 1963.

### • 주요 연구물

- 권영파, and 이규성.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스힐레벡스 인간학의 현대적 함의.” 『인간연구』 43 (2021): 159-188.
- 권영파, and 이규성. “스힐레벡스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해.” 『신학전망』 213 (2021): 80-114.
- 남정우. “기상목회: 가톨릭교회의 새로운 신학과 에드워드 쉘레벡스.” 『기독교사상』 45.9 (2001): 158-168.
- 오승성. “올바른 실천 (orthopraxis) 우위의 비판적 신학을 위하여: 쉘레벡스의 실천적 비판 신학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3.1 (2011): 195-219.
- 윤철호, “쉘레벡스의 인식론과 해석학”, 『신뢰와 의혹: 탈근대적 그리스도교 해석학』, 대한그리스도교서회, 2020, 380-415.
- Bullivant Stephent, “The Myth of Rahnerian Exceptionalism: Edward Schillebeeck’s Anonymous Christian”, *Philosophy & Theology* 22, 2010, 339-351.
- \_\_\_\_\_, *The salvation of atheists and Catholic dogmatic the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Hilkert, Mary Catherine and Robert Schreiter, eds, *The Praxis of the Reign of God.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Edward Schillebeeckx*,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2

McManus, O.P., *Unbroken Communion: The Place and Meaning of Suffering in the Theology of Edward Schillebeeckx*,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3.

Thompson Daniel Speed, *The Language of Dissent: Edward Schillebeeckx on the Crisis of Authority in the Catholic Church*,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3.

논문투고일: 2021년 11월 11일

심사개시일: 2021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13일

---

• 국 문 초 록 •

---

스힐레벡스의 ‘미명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세계 구원 의지에 협조하며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려는 인간을 그려낸다. ‘비판적 부정성’은 불의와 고통에 저항하는 힘으로서 정치적, 신비적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스텔레벡스 신학에서 구원은 사회정치적 해방에 머물지 않는다. 인간 행동과 실존 이해에 전제되어야 하는 구성적 조건인 ‘인간학 상수’는 구원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여기서 구원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정치적, 관계적, 영성적 조건들이 충족되어 인간성이 충만하게 실현된 상태를 지향한다. 한편, 스텔레벡스가 제시하는 ‘윤리적 순교’는 인간성의 증진을 위해 투신하는 과정에서 맞게 되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그리스도인의 ‘종교적 순교’는 이미 실현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론적 희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감내하는 삶을 말한다. 스텔레벡스가 제시하는 ‘윤리적 순교’는 사회영성을 통해 종교간 대화 뿐 아니라 비종교적 사회운동과의 협력 안에 이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주제어:** 스텔레벡스, 대조경험, 비판적 부정성, 윤리적 순교, 사회적 영성

---

